



2050년까지 아라비카 커피 재배지 20% 부적합 전망

(Fifth of arabica coffee growing area to be unsuitable by 2050, report says)

라보뱅크는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현재 아라비카 커피 재배 면적의 약 20%가 재배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 주요 생산국을 포함한 아라비카 재배지의 약 8%는 이미 재배에 부적합한 상태로 평가되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비료 재고 확보 위해 대체 공급처 모색

(India tapping alternative sources to boost fertilizer stocks, official says)

화학비료부 고위 관계자는 월요일, 인도가 충분한 비료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계 작물 파종에 대비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비료부 차관인 아파르나 샤르마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 전쟁 이전 기준으로 걸프 지역이 인도의 요소 수입의 약 20~30%, 인산이암모늄(DA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3월 수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러시아 밀 수출가격 안정세

(Russian wheat exports stable as analysts raise March forecasts)

러시아의 밀 수출가격은 지난주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뚜렷한 가격 변동 요인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분석가들은 3월 수출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 조정했다. 컨설팅 업체 IKAR의 드미트리 릴코 대표는 단백질 함량 12.5% 기준 러시아산 밀의 5월 인도 조건(FOB) 가격은 톤당 238달러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코트디부아르 2025/26 코코아 반입량, 전년 대비 1.2% 감소

(Ivory Coast 2025/26 cocoa arrivals down 1.2% year-on-year as of March 29)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의 2025/26 시즌 코코아 항만 반입량은 3월 29일 기준 142만 3천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수준이다. 수출업체 추정에 따르면,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아비장 항에는 약 1만 4천 톤, 산페드로 항에는 약 1만 7천 톤이 반입되어 총 3만 1천 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만 4천 톤 대비 증가한 수준이다.

출처: Thomson Reuters